

■ 개신교 왜 이러나

전통문화 몰이해 어이없다

단체 통한 MB정권의 불교탄압 대리전 의혹... 조계종 '신중' 입장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전폭 지지했던 일부 개신교단체들이 신 문광고를 통해 불교계를 원색적으로 비판하고 나서, MB정권의 불교 탄압이 개신교단체를 통한 대리전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신목 목사, 한국장로회총연합회(대표회장 이종운),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회장 신명범 장로), 한국교회연론회(대표회장 김승동 목사), 민족복음화부흥협의회(총재 이민구 목사)는 7월 14일자 동아·문화·국민일보에 “종교계는 국민혈세를 조달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제하의 광고를 냈다.

개신교단체들은 광고에서 “정부의 원칙 없고 무분별한 국가 재정이 원이 종교계를 병들게 한다”며 불교계에 지원되는 국고를 문제 삼았다.

이들 단체는 “템플스테이에 6년간 563억원, 문화재 관리 보수비에 10년간 4570억원, 대구불교테마공원 조성에 1200억원이 지원됐고, 문화재관람료로 한해 330여 억원이 징수되는 등 불교계는 이런 저런 명목으로 매년 천문학적인 금액을 세금에서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신교계는 “2009년 문화재보호 기금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연간 5000억원이 문화재관리 명목으로 불교계 등에 흘러들어가고 있다”며 법안을 발의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다.

개신교단체들은 “템플스테이 사업이 불교포교에 사용되고 있다”며 종교편향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에 대해 템플스테이사업단 이민우 팀장은 “템플스테이를 방문한 외국인인 14만명, 내국인도 불자가 아닌 이들이 60~70%가 참여하는 등 템플스테이 사업은 정부와 OECD가 지정한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개신교단체들은 태고종이 불교문화전승관 명목으로 60억원을 부정한 사실 등을 예로 들어 마치 불교계가 국고 횡령을 일삼는 부도덕한 단체인양 매도했다.

개신교 단체들은 “고려불교로 인해 고려왕조가 망했다”는 해괴한 논리를 앞세우며, “불교계가 국가정책에 압력을 행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종교행사를 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어 국가가 위태롭다”는 주장도 펼쳤다.

불교계는 “불교문화가 한국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국고지원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개신교계의 템플스테이 사업이 종교편향이라는 지적에는 강원도 횡성에 9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이어지는 바이블파크를 예로 들어 종교적 아이템을 잠재성 있는 관광자원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개신교단체들은 “불교계와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과의 갈등은 정종(政宗) 정계와 종교계 유착이다. 불교계는 ‘종교편향’이라며 정부를 몰아세우고, 한편으로는 국가의 예산을 더 받아내기 위해 ‘로비’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신교단체들은 불교계 소유 토지를 몰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도 서슴치 않았다.

이들은 “일제 식민 치하에서 기독교는 필살품 다할 수 없는 필박을 받았으나 불교계는 조선총독부와 밀착해 엄청난 재산을 얻었다”는 역지를 펼쳤다.

이에 대해 김광식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는 “일제가 한국 불교계에 왜 토지를 주겠느냐?”며 개신교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 연구교수는 “일제 강점기에 근대식으로 법령이 정비되는 과정에서 토지측량을 해 등기된 토지를 개신교계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당시 스님들 중에는 ‘일본 놈에게 토지를 신고하면 뺏긴다’며 토지소유 신고를 안해 유실된 산보정재도 많았다. 일본 강점기를 거쳐 불교계 소유 토지가 줄었으면 줄었지 늘어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개신교계의 전면공세에 조계종 총무원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은 “최근 개신교계의 반불교계 정서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포착돼 여러 경로를 통해 배정 등을 확인·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최근 대구 팔공산 불교테마공원 사업의 일부를 수정해 시의회에 불교테마공원 사업을 불로동 고분공원 정비사업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대구 팔공산 불교테마공원 사업은 최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가 템플스테이 사업과 함께 언급해 물의를 빚었던 사업으로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등 개신교계가 강하게 반발해왔다. 조동섭 기자



7월 13일 한나라당 당대표 토론회가 열리는 KBS 앞에서 불교단체 관계자들이 안상수 의원의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불교단체 “안상수 후보 사퇴”

계속 압박 수위 높일 예정 경고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불교단체의 후보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안상수 의원이 한나라당 새 대표로 선출됐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대표 퇴휴), 청정승가평화위원회(대표 김동진),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웅정),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은영), 나무여성인권상담소(소장 김영란) 등 6개 불교단체는 7월 13일 한나라당 당대표 토론회가 열리는 KBS를 방문한데 이어, 14일

한나라당 전당대회장인 잠실종합체육관을 찾아 ‘봉은사 주지’ 관련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안상수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불교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당 대표에 출마한 안상수 의원은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에게 ‘좌파주지 퇴출’ 운운해 불교계의 반발을 불렀음은 물론, 정교분리를 명기한 헌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인물”이라며 “공당의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은 커녕 시민 일반의 상식에도 못 미치는

이 당대표가 된다면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수치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친이계로 분류되는 안 대표는 여론조사에서 1295표를 얻어 1482표를 득표한 홍준표 의원에게 뒤졌지만, 대의원 투표에서 앞서 홍준표 의원을 462표 차로 앞서 당선됐다.

손상훈 재가연대 정보관리국장은 “문수 스님 추모제 이후 불교단체들과 연대해 안상수 새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일간지 종교 기사 불교에 치우쳤으니 고쳐라?

한국교회연론회 종교 보도 분석... “언론 자유 침해 소지 있다” 우려

한 개신교계 단체가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중앙일간지의 종교 보도 기사 통계를 분석하며 종교편향 운운하는 결과를 내놓아, 언론에 까지 반불교 정서를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교회연론회(대표회장 김승동 목사)는 7월 12일 ‘2010 상반기 각 언론별 종교 보도 분석’을 발표했다. 조사는 2010년 상반기(1~6월) 중앙일간지(조선·중앙·동아·경향·한겨레·문화·서울·한국·국민·한국경제)의 사건, 인물, 자료 소개 등 종교 관련 보도의 크기와 성향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2010년 상반기 각 신문이 종교 관련 사항에 할애한 지면은 97만3928cm이며, 횡수는 2896회였다. 종교별로는 불교가 38만8305cm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신교가 24만5710cm, 가톨릭이 19만2850cm, 이슬람이 6만1436cm, 유교가 8006cm, 정교회가 5444cm, 힌두교가 3521cm, 유대교가 600cm, 대종교가 372cm, 천도교가 1321cm이었다. 여러 종교가 혼합 관련 보도는 5만4700cm 등이었다.

불교 관련기사는 경향이 6만5721cm로 가장 많이 보도됐다. 이어 한겨레(6만2370cm) 중앙(4만

8346cm) 조선(4만7656cm) 한국(4만7188cm) 문화(3만5607cm) 서울(3만2716cm), 동아(3만1725cm), 한국경제(1만3705cm) 순이었다.

한국교회연론회는 “이 기간 동안 중앙일간지의 불교 관련 보도가 종교기사의 40%를 차지하고 있었다. 종교 중 불교를 가장 많이 보도한 언론은 국민일보를 제외한 나머지 언론사가 모두 해당했다”며 “종교보도가 불교에 지나치게 치우친 현상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개신교에 대해서는 한겨레(20.41%)가 가장 부정적으로 보도했다”며 “경향과 한겨레는 불

교를 편향적으로 보도하면서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 보도 비율도 높았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연론회는 같은 조사를 하반기에 한 차례 더 실시한 후 연간 통계자료로 정리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일각에서는 “통계조사를 빌미로 언론사에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한국교회연론회는 2003년 중앙일간지에 게재된 예술·전술 광고 게재를 조사한 후 신문에 발송하기도 했다. 조동섭 기자

일제 수탈 문화재 환수 힘 모은다

조계종, 이천시장에 이천오층석탑 회수에 힘 보태겠다 약속

일제에 의해 수탈된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해 조계종과 지자체가 힘을 모은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7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주병돈 이천시장(이천오층석탑 환수위원회)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천오층석탑 환수에 종단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수탈된 문화재라 할지라도 상대가 참회해 돌려주는 것으로 보여서는 일이 성사가 힘들다”며 “의욕적·선정적인 개제 자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조동섭 기자

주병돈 이천시장은 “이천시민이 한마음으로 석탑의 반환을 기다리고 있다. 일본 측도 석탑의 내력을 알고 있다. 환수위도 반환의 당위성은 설명한 상태이나 주고 싶지 않은 모양이다. 조계종이 힘을 보태준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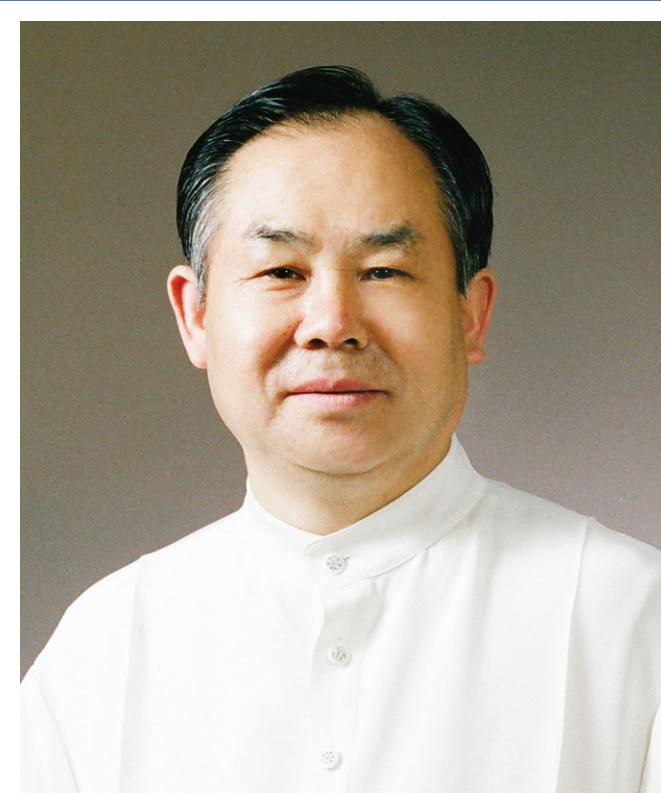
이에 자승 스님은 “전 국민이 호응하고, 서명해도 상대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문화재 반환은 이룰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천오층석탑은 이천 망현산 기슭에 있던 고려시대 석탑(높이 648cm, 폭210cm)이다. 일제가 1915년 조

선물산진공회를 열면서 박람회장인 경복궁으로 옮기고, 1918년 오쿠라 기하치로에 의해 동경 오쿠라 호텔로 옮겨졌다.

이천시는 2009년 10월부터 이천오층석탑 반환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해 2010년 5월 10만명을 돌파했다. 이달 말경 도쿄에서 반환 협상을 앞두고 있다.

한편, 자승 스님이 이천시장에게 문화재 환수를 위해 상대를 존중하고 신중히 접근할 것을 주문한 것은 옛 경북공 건물인 간월당 반환이 늦어지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조동섭 기자



耕當問奴 (경당문노)라
농사일은 마땅히 농부에게 물어보고
작명은 마땅히 작명가에게 물어보고

작명

개명. 아호. 상호
역학개인지도

★ 자녀들의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알고 계십니까? ★

자기 이름 뜻도 모른다면 무엇을 따로 알 것을 구하겠는가?
현명한 부모님은 소중한 자녀들을 귀(貴)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예로부터 작명을 오늘날까지 소중히 여겨오는 것입니다.

- 방필석 대외활동
- 前 대통령 손녀딸 작명
 - 前 대통령 영식 아호 찬명
 - 前 인도 대통령 초청 방문
 - 前 스리랑카 대통령 3회 초청 방문
 - 前 스리랑카 문화부장관 초청방문
 - 現 서울 보명사 창건 공덕주
 - 前 스리랑카수상서울보명사 참배
 - 前 스리랑카수상과 함께 청와대 방문

대다수 획수 작명은 말은 되지만 뜻이 맞지 않으니
뜻있는 곳에 참 이름이 있네! 뜻 있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바윗돌에 씨앗을 뿌리면 썩이 트겠는가?
고객이 인정한 **한 장소에 21년 작명 국가 공인 한자 1급 3번 합격**
♬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전화 ♬
☎ 02) 739-8259 (빨리오구), FAX 730-8528

전화신청형, 국내의 우편발송 우리는행/계좌번호: 306-07-19442 예금주: 방필석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등용문빌딩 201호 (종각역 2번 출구 조계사 옆)
한국민속철학연구소 방필석

■여유있기를 기다린 후에 남을 구제한다는 것은 반드시 남을 구제할 날이 없을 것이다.
待有餘而後濟人是必無濟人之이요
■여유있기를 기다린 후에 개명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개명할 때가 없을 것이다.
待有餘而後濟人改名은必無改名之時라